간행물

주교*
Garland F. Byers, Jr., J.D., D.D. ‡
열방의 주교, 사도적 위임 아래

✠

>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 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
> 마태복음 13:52 (개역한글)

차례

천국의 서기관 글의 번호를 매기는 방식 분류 글을 받는 이들 읽는 방법 RSS로 구독하기 연재와 권 글 목록

✠

천국의 서기관

주교 Garland F. Byers, Jr.는 교회의 주교이다. 주교로서 그의 소명은 회중을 목회하거나 양 떼를 치는 것도, 성직자의 통상적인 목회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 말씀으로 묘사하신 소명, 곧 천국의 서기관으로 섬기는 일이다.

예수의 시대에,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는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들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보존하고 그것을 가르쳐 백성이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에스라 7:6)였으며, 그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에스라 7:10). 율법이 백성 앞에서 낭독될 때에는 이러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느헤미야 8:8). 주께서 친히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마태복음 23:34).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 온다. 그는 신앙의 옛 진리를 다시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새 것을 제시한다. 그는 자기 힘으로 쓰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쓴다. 주께서는 성령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한복음 14:26).

이곳에 모은 글들은 그 소명의 열매이다. 바이어스 주교는 인도함을 받는 대로, 시대와 신자들이 요구하는 무엇에 관해서든 쓴다. 그것은 교리의 한 가지 요점일 수도 있고, 환난의 때에 주는 한마디 말일 수도 있으며, 여러 부분에 걸쳐 이어지는 긴 연구일 수도 있다.

✠

글의 번호를 매기는 방식

각 글은 간행 순서에 따라 번호를 받는다. 제1호, 제2호, 제3호와 같은 식이다. 모든 글은 그 성격이 무엇이든, 누구에게 보내진 것이든, 이 하나의 순서로 번호가 매겨진다. 번호는 해가 바뀌어도 끊기지 않고 이어지며, 결코 다시 시작하거나 재사용하지 않는다. 각 글에는 또한 간행된 날짜가 적힌다.

번호는 그 글의 영구적인 참조 표지이다. 번호는 모든 언어와 모든 형태에서 동일하므로, 어떤 글이든 언제나 그 번호만으로 인용할 수 있다. 어떤 글이 나중에 수정되면 그 글은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원래의 날짜 아래에 개정 날짜를 표시한다.

✠

분류

각 글은 그 성격에 따라 분류된다. 한 글이 둘 이상의 분류를 가질 수도 있다.

알림

비극이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때에 위로와 기도를 전하는 짧은 말로, 행동을 촉구하지는 않는다.

권면

시대의 필요에 응답하여 기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 헌금과 같은 구체적인 일을 맡도록 신자들에게 하는 부름. 성탄절과 부활절 메시지는 권면이다.

경계의 말

커져 가는 위험에 대하여 이치를 들어 하는 경고로, 신자들이 깨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적 교정

거짓 교리나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글.

칭찬의 서신

친절이나 믿음의 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감사하는 짧은 글.

교리 요점

교리의 한 가지 요점에 관한 짧고 평이한 가르침.

교리 진술

교리의 한 문제에 관한, 교리 요점보다 길고 더 충실하며 일관된 가르침.

교리 논고

교리의 한 문제에 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연구로, 오래 남을 참고 자료가 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행정 문서

동료 주교에게 보내는 편지나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한 글과 같이, 교회의 질서와 일에 관한 편지나 그 밖의 글.

✠

글을 받는 이들

모든 글은 땅의 열 지역 가운데 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또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에게 함께 보내진다. 동료 주교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이 어떤 글이 특정한 사람에게 보내지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글의 제목에 밝힌다. 글들은 또한 열 나라 페이지에 그 글을 받는 교회별로 열거된다.

✠

읽는 방법

모든 글은 이 웹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으며 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번역이 완료되는 대로 각 글은 같은 번호로 이 사이트의 다른 언어로도 제공될 것이다.

RSS로 구독하기

새 간행물은 RSS로 구독할 수 있다. RSS는 각자가 고른 피드 리더 앱을 통하여 새 글이 나올 때마다 알림을 받는, 무료이며 간단한 방법이다. 가입이 필요 없으며,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나 그 밖의 어떠한 개인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사역은 누가 구독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으며, 구독자가 누구인지 알 방법도 없다.

피드는 각 새 간행물의 제목과 짧은 요약을, 이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읽을 수 있는 링크와 함께 제공한다. 이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방문은 어떤 페이지가 몇 번 읽혔는지, 어느 나라에서 읽혔는지와 같은 익명의 합계로만 집계된다.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기록하지 않는다.

이는 의도적인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교 문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RSS를 이용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누구에게도 남기지 않고 이 간행물들을 구독할 수 있다.

한국어 간행물 RSS 피드

연재와 권

어떤 글은 단독으로 완결된다. 다른 글은 더 긴 연구의 일부로서, 신자들이 전체가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각 부분이 완성되는 대로 나누어 간행된다. 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글들은 연재별로도 묶일 것이며, 때가 되면 여러 권으로 엮일 것이다.

글 목록

번호	수신	제목	분류

글이 간행되는 대로 번호순으로 이곳에 열거된다.

✠

이 페이지에 인용한 한국어 성경 구절은 모두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1)에서 가져왔다.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 대한성서공회 1961. 본문: CrossWire 성서공회 KorRV. 구절은 발췌하여 인용하였으며, 생략한 부분은 줄임표(...)로 표시하였다.